

# 삼각산 보도각백佛 '혜손'

## 인근 발파공사로 균열...시멘트로 엉터리 덧칠

서울시 불광터널배수지공사로 지정문화재인 마애석불이 새겨진 바위 10여곳에 30~100cm의 균열이 생겨 시멘트로 덧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성보문화재 관리에 헛집이 드러났다.

이 마애석불은 높이 10m 가량의 불암(佛岩)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에 새겨진 관음보살좌상으로 서울시 삼각산 옥천암(주지 성전)에 있는 보도각백불(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다.

불암의 혜손을 처음 발견한 성전스님에 따르면 균열은 옥천암에서 100m 떨어진 불광터널배수지공사장의 잦은 발파로 인해 지난해 가을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는 국가에서 공인한 보수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당시 시공을 담당한 삼주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오성토건이 시멘트로 덧칠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와 서대문 구청이 최근까지도 지정문화재 훼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불광터널배수지공사는 삼각산을 관통하는 상수도 터널을 뚫는 것으로, 2000년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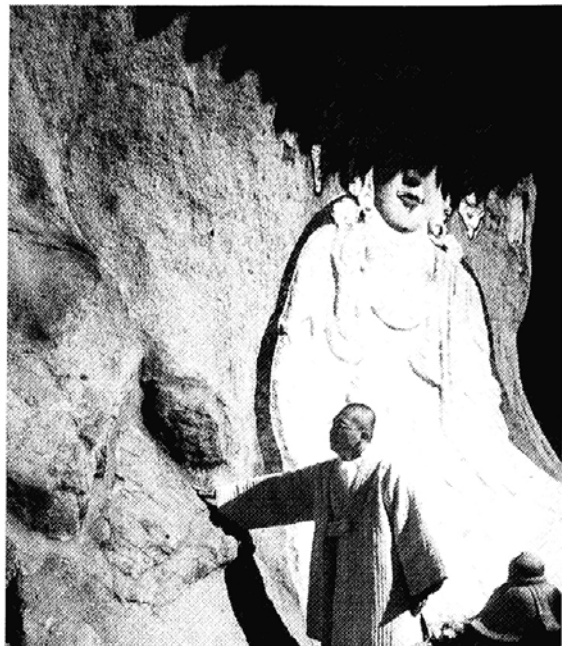
불암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옥천암 반경 70~1800m 이내에서 발파가 집중·실시됐다. 이에 따라 옥천암 측은 서대문구청과 삼주건설 측에 보도각백불의 보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서대문 구청 측은 문화재 보수를 책정했으나, 보수비 규모에 옥천암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삼주건설측은 안전감사를 한 만큼 균열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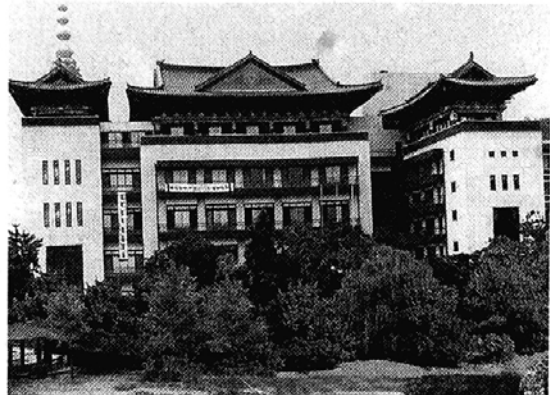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덧칠된 시멘트는 대기의 수분과 결합해 문화재 곳곳에 백화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며 불암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서울시 유형문화재 17호 보도각백불 왼쪽 일반의 균열과 시멘트 덧칠지국을 옥천암스님이 가리키고 있다.



◇연건평 2884평 지상5층 지하4층 규모의 한마음선원 인양본원 새 법당 전경.



◇10월31일 봉행된 낙성법회에는 교계지도자들과 정·관계 인사들 1천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 한마음선원 새법당 낙성

사부대중 1천명 법회동참  
선방·회의실·도서실 갖춰  
인터넷방송국 12월중 개국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안양본원이 6년여 공사 끝에 새 법당을 완공하고 10월 31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테이프발단식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헌화, 경과보고(명목식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인사말씀(대행스님), 법어(월운 동국역경원장), 격려사(일명 조계종교육원장) 축사(공우 전국부구회회장, 백창기 조계종중앙신도회장), 폐회 기도,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은 법어에서 "안양지역의 불교발전을 선도해온 한마음선원이 새 법당불사를 계기로 전법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은 중흥 해안스님을 대신해 증성교화와 불법전파에 탁월한 공적을 인정해 대행스님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월운 일명 공우 원택스님과 현성(중앙승가

대 총장) 인환·보광(동국대 교수) 법륜(정포회 지도법사), 해명 진관 명우 수현 해주 경륜 지광 계환 영은 묘순 스님 등과 박청수 교무(원불교 강남교당), 조순(한나라당 명예총재) 순학규·주양자(전 보사부 장관), 김일주 이석현 정문화 국회의원의 김중서박사(전 교육개혁위원장) 등 교계 및 정 관계 인사 약 1천여명이 동참, 축하했다.

6년반만에 완공된 새법당은 연건평 2884평,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로 대법당과 강당, 선방, 회의실(결혼식장 겸용), 방수실 비디오키오도서실 공방강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118평 대법당의 본존불과 법상은 인간문화재 박찬수씨가 조각했고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청원스님과 김성규씨가 각각 목탱화와 단청·개금을 담당했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10월 31일자로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를 개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또한 11월 한마음인터넷방송국(hbn.hanmaum.org)과 한마당 한마음(madang.hanmaum.org)을 시범 운영하여 12월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법회 연다 매달 서울도심서 야단법석

### 14일 인사동서 '현각스님과 만남'

#### 불자시민 네트워크 설립위

밀레니엄시대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불교를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불자시민네트워크 설립준비위(위원장 김용권, 외세도통역관광학원장)는 매달 서울역광장, 대하로 마로니에공원 등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열린법회를 열기로 하고 14일 오후 2시 인사동 로터리에서 현각스님을 법사로 첫 행사를 연다.

길거리에 임시로 단을 만들어 진행하는 열린법회는 사물놀이패와 같고 현각스님(화계사 극제선원)이 '21세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를 주제로 영문과 한국어로 일반시민들에게 알본다. 또 불교포교를 위한 진단도 배포하여 불자변화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권 준비위원장은 "현재불교의 깨달음과 사찰중심의 관료주의에서 직접 중생들을 찾아가 괴로움을 직접 해결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자네트워크는 일반시민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전하는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인터넷네트워크와 불자일꾼을 양성하는 열린불자시민학교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 '선본사 총돌' 폭력배개입 경찰수사

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경산 선본사(갯바위)에서 총무원과 평화개혁회의측과의 총돌과정에 폭력배가 동원됐다는 정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9일 새벽 선본사 기도도량인 갯바위(약사여래불)에서 벌어졌던 자폭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유혈충돌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11명의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나섰다. 경찰은 총무원회법부 심우스님과 평화회의측 보연스님에 대해 8일 참고인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며, 폭력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산=이윤호 기자

## 중신회 불교자주화 회복 나선다

### 8일부터 법회·토론회 등 행사 다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일 중신회 상임운영회의와 산하 연합신행단체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중단사태에 관한 안내 및 협조, 지역신도회 결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교수불자연합회 대한불교총동맹 등 9개 신행단체 대표들은 불교자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논의했다.

일정은 △8일 사찰별 '불교자주화 선언 전국 동시법회' △13일 오후 3시 '불교혁신과 불교자주화' 대토론회(조계사문화교육관) 및 연등(충북) 침묵 행진, 연등공연, 철야 정진법회 △14일 오후 1시 '사회정의와 불교자주화 찾기 불교도 전진대회' 및 '화엄

10선계 수계법회 및 철야정진' △15일 이후 한빛소원과 파해보상청구소송 등 법적 명예회복 추진 등이다.

중신회는 이어 3일 대구 동화사에서 제12차 전체 운영회의를 열고 '중단 자주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신도회의 입장'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중단이 이번의 사법사태를 자주회 원칙에 근거해 '사법절차의 흠결보전'이라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 다시 총무원장 선거라는 중대사태에 휘말린다면 중도들의 자존심회복을 차치하고, 한갓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나친 경쟁은 자제해 줄것을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조계종 자원봉사단 '99 수해복구 공로인정'

### 행자부장관 표창받아

조계종 자원봉사단(단장 양산)이 행정자치부가 시상을 하는 '99 수해복구 자원봉사 수공자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자부장관상을 받

았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올해 문산·연천지역 수해에 6일간 연인원 1천4백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수해복구활동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96년 문산·연천지구 수해복구 및 98년 동두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현명우 기자

## 교계 인터넷홈페이지 조계종 시대 '속보경쟁'

조계종사태와 관련하여 교계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실시간 상황을 속보로 전달하는 등 속보경쟁이 치열하다.

부다피아(www.buddhopia.com)는 173개 속보종 40여개의 조계종 관련내용을 수시로 띄워 최고 1백80여명이 검색하는 등 열기가 뜨겁다. 특히 부다피아는 영문서비스란에 영문속보를 띄워 외국에서도 활발한 검색을 통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달마넷(www.dharmant.net/)은 '조계종사태 재연위기에 바림직한 해결 방법은 없는가'라는 토론편을 개설했는데 현재 3백여건의 내용이 올라있다.

불교정보센터(www.budinfo.or.kr)도 특별게시판 '조계종사태'나도 할말 있다'를 운영하여 143명이 글을 올린 상태다. 김원우 기자

## 뉴스 & 뉴스

### 동국대 장례문화학과 신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장례문화학과가 신설됐다.

교육부가 3일 인가한 동국대 장례문화학과는 석사학위과정(5학기)과 지도자과정(4학기)으로 내년부터 3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과목은 기초과목의 불교·불교문화특강을 비롯 종교이론, 임종론, 장례경영론, 사치관리제도론, 장례식장 운영실습 등으로 짜여져 있다. 김준근 기자

### 11개 중립학교에 장학금

조계종 서울·경기지역 포교사단(상임운영위원장 김기봉)은 10월27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일 대전에서 전국운영위원회(탑재회의) 회의를 열어 포교사단 정관 제정안과 중앙운영위원회 및 임원 구성, 포교사단 출범식 준비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포교사단은 또 오는 15일부터 11개 중립 중학교의 추천(마감 8일)을 받은 불우 청소년 11명에게 4/4분기 장학금(생활보조금) 각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경 기자

### '로우터스 랜턴' 3호 발간

조계종의 영문소식지인 <로우터스 랜턴> 3호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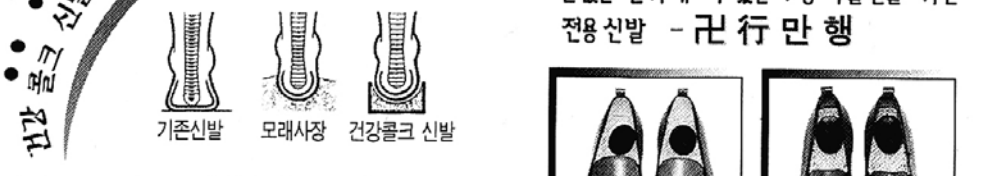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초발심으로 출가한 행자들의 생활과 교육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승보사찰 송광사와 생령나눔 실천회를 소개했다. 또 불교음악 법패와 티벳불교 미술, 불교뉴스 등을 다뤘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만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 드한사이클)약식간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사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의 피혁이 상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흥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요소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강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오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인체 순환기능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1. 구두안쪽의 특수 인형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타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되었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행대표 박동진 합참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트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파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통풍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과포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 착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도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랄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1가지 이상 선택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